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div>경 축</div> <div>재외동포청 개청</div>	
		배포일자	2023년 6월 15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농축산과	담 당 자	• 농정팀장 김정희 ☎440-4361 • 담당자 진정화 ☎440-436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오는 2학기부터 강화쌀로 지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
- 인천 관내 7개 대학에 정부지원과 별도로 8월 개강부터 한끼 당 1천 원씩 -
- 강화쌀 8톤도 함께 지원... 지역 특산품 지원 사례는 전국 최초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7개 대학에 오는 8월, 2학기부터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학생들의 밥값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7개 대학*에 한끼 당 1천 원의 현금과 함께 강화 쌀 총 8톤도 현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7개 대학에 한끼 당 지원하는 1천 원과는 별도로.

*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경인교대(인천캠퍼스), 연세대(국제캠퍼스), 청운대학교(인천캠퍼스),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이를 위해 시는 6월 15일까지 대학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7월 말까지 쌀 현물업체를 선정해 7개 대학, 총 65,200명의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지원한다.

시는 아침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9천만 원을 1차 추경에 확보했고, 쌀 소비 확대라는 원래 사업 취지를 살려 도농 상생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인천의 대표 특산품인 강화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의 수요가 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지자체별로 예산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강승유 시 농축산과장은 “강화쌀로 지은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시행되면 관내 대학생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아침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인천의 대표특산품인 강화섬쌀의 소비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